

업장은 짧고 과보는 길다



경복궁 정문 홍례문. 1404년(태종5년) 9월에 경복궁이 준공되어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㉔

3대 태종 현릉(2)

“아바마마, 아바마마! 태상왕 전하!”
태종의 흐느낌이 침전 밖까지 들린다. 강철 빛에 발목 걸린 맹수처럼 깊고 처절한 울음이다. 내관들은 파랗게 질린 낯빛으로 안절부절못한다. 철벽같은 장애를 두려움 없이 까부시고 권좌에 올라 여기까지 왔는데, 슬한 저주의 아우성마저 환호로 여기며 예까지 왔는데, 내일은 또 어떤 보고가 올라올까. 밤이 이슬처럼 응포도 벗지 못하고 앉아 주먹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다.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만든 핏물이 몸을 잠고도 넘치거늘, 앞날은 감각하기만 하다. 이승에 없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자식을 낳고 키워보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뼈 속 스민다.

세자 양녕의 기행(奇行)은 날이 갈수록 더하다. 기행의 도를 넘어 만행(蠻行)이다. 아버의 속은 솟깃정

이 되어간다. 태조의 가슴에 박았던 대못이 자신의 가슴에 쇠말뚝이 되어 박힌다.

“전하, 세자 저하가 물레 공을 나가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가 저자의 기생집에 머무르고 있다 하옵니다. 그 기생은 상왕(정종)전하께서 아끼는 기생이라 하옵니다.”

보고가 두렵다. 여염의 난봉꾼을 능가하는 행태가 연일 보고된다. 세자는 민가의 사내들조차 엄두를 못 낼 아만을 연일 저지르고 다닌다. 권력을 위해 아비에게 무자비했던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태종은 왕권강화를 절대가치로 규정했다. 신흥 왕조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쳐단했다. 태종 5년(1404) 11세의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적통 장자의 왕권 계승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자신도 건강한 38세나 제왕 수련에 자신이 있었다. 그 의도를 거스르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았다.

외척 세력이 발호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았다. 정비 원경왕후의 4명의 남동생(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마저 처형했다. 양녕은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냈다. 자연스럽게 외삼촌인 그들과 친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세자의 위세를 은근히 업고 조정의 실세로 행세했다. 그들을 차례로 유배 보내고 자신(自盡)토록 했다. 끝없는 피의 향연이다.

10여년 이상 제왕 수업에 공을 들였지만 세자의

왕권 강화 절대가치로 규정, 도전하는 세력 무참히 처단 만행 극에 달한 양녕은 태종 18년에 폐세자되어 유배 충녕대군 세자 책봉 두 달만에 ‘왕좌’ 성군 세종시대 개막

씩수는 갈수록 노랗다. 청년이 되어 색정에 눈을 뜨자 본격적으로 호색한이 되어간다. 세자에겐 공경이 구중심처가 아니라 신출귀몰의 놀이터다. 근신하라는 어명을 교묘을 치며 날려버린다. 수색대를 풀어 세자를 궁으로 잡아들여 놓으면 대궐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다.

난봉질도 주로 친인척의 애첩을 건드린다. 임금으로서, 아비로서 태종의 체면이 낮을 수 없을 정도다. 온갖 비난을 감수하며 피땀이 된 손으로 꽃꽂이 세우고자한 왕권이 세자의 일탈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급기야 세자는 아버지 태종에게 포복절도할 편지마저 보낸다.

“원기왕성하신 전하! 아바마마께서는 어찌 그리 정력이 세십니까? 스물여덟에 소지를 낳으신 후 매년 한둘씩 아들딸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아바마마를 포함해 부인이 열 명이옵니다. 아직도 더 늘려갈 계획이시지요? 소자는 자랑스러운 아바마마의 자식입니

다. 소자 또한 열 이상의 애첩을 거느리고 싶습니다. 소자의 이런 생각을 어찌 나무라려 하옵니까. 전하께서는 후궁 여럿을 거느리기도 되고 소자는 기생첩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해괴한 법도이옵니까. 소자 또한 전하의 자식답게 정력이 왕성합니다. 소자의 용맹을 타히지 마시고 격려해주시시오.”

실록에 기록된 편지의 핵심은 위와 같다. 한때 유행했던 ‘딱가지는 거지요’였다. 차라리 뜯어보지 말고 불태워버릴 것을, 편지를 읽은 태종은 온몸을 떨었다. 태산도 옮기고 천군만마도 두렵지 않았거늘 20대 청년 양녕이 무섭고 두렵다. 자신이 휘두른 칼날에 사라져간 이들의 원기의 몸속에 온통 엉겨 붙어 있는 것 같다. 이승을 떠난 태조 이성계가 비웃는 것 같다.

용포를 찢으며 마취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비틀거리며 방안을 휘젓고 다닌다. 사태를 수습하려는 내관마저 호통을 쳐서 내쫓는다. 폐세자를 주장하는 상소가 이미 산더미처럼 쌓였다. 적장자 왕통 계승의 꿈이 서서히 허물어져간다.

마침내 태종 18년(1418)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된다. 그의 나이 25세, 세자가 된 지 15년만이다. 1418년은 태종 재위 마지막 해다. 마지막까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태종의 고인이 보인다. 양녕은 태종의 낯선 가슴의 칼을 무디게 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양녕이 아니었다면 태종은 이승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일파를 제거하는데 일조했고 방원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능력을 발휘했다.

왕비가 된 후에는 태종과 불화가 그치지 않았다. 태종의 후궁이 많은 것은 권력 분산과 왕권 강화를 위한 책략이었다. 민씨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투기했다. 폐비의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태종은 후일을 걱정하여 끝내 폐비시키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가 훨씬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정씨가 싸늘하게 식었지만 원경왕후는 태종 곁에 누워 있었다. 합장릉이 아닌 쌍릉인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길까. 두 개의 능은 1미터 정도 간격으로 바깥쪽에 있었다. 굽직한 지대석이 두 개 능을 이어주고 있다. 지금 이들은 돌아누워 있을까. 마주 보고 있을까.

양녕에게 혼술이 난 태종에겐 불세출의 현군이라 칭송되는 또 다른 아들, 세종이 있다. 과연 세종은 미덕으로만 등재된 위인일까. 그가 묻힌 영릉으로 간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현릉의 능침.



현릉의 신도비.

새로운 연등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마음의 빛으로 승화하시고 소원성취 하소서

차량 탑재 가능

1톤 트럭탑재시
길이3M 높이 3.5M

차량 자체전원으로 점등가능

소품형(가로등대용) - 각종행사시 연등걸이대로 사용가능

아치형 - 사찰입구 및 경내에 설치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전구는 LED로써 필라민트 전구보다 10%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매우경제적임.

*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E2LINC.COM)

e2l LIGHTING DESIGN **이투엘아이엔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2가 10-1번지
제작 및 납품문의: 02-2633-4955